

■ 2017년도 관현악 지속연주지원 심의 총평

- 일시 : 2017. 2.1(수) 11:00~12: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국, 김용환, 박재성, 정종열, 정치용, 최광일, 한상일

2017년도 관현악 지속연주지원에는 총 12건의 사업이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지원신청한 사업에 대해 ①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②예산 및 일정계획 ③예술적 역량 ④홍보마케팅 ⑤작곡가 및 단체의 실적 등을 심의 기준으로 하여 총 6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심의진행은 사전에 우편물을 통해 전달받은 본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와 지원신청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위원별로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심의의 주안점으로는 사업의 목적성과 탁월한 기획력, 예술적 성취요건을 기준으로 두었다. 심의일에는 신청단체 사업에 대한 심층토의를 진행 후, 심의위원 개별 채점을 통해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였으며, 고득점 순위별로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차등을 두어 배정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은 지원의 자격요건인 '초연된 곡의 재연 관점에서 연주회의 경우 2곡 이상 창작 재연곡을 포함' 하고 '음반 제작 시 50% 이상 창작 재연곡을 포함'하여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개별 채점 평가에서 역량에 대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관현악 공연은 형이상학적 철학과 함께 대중과의 소통이 될 수 있는 레퍼토리 선정과 더불어 적합한 출연진의 구성 등 공연 기획도 작품 컨셉에 맞게 고려를 하여야 하며, 위 심의평에 언급한 지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내 창작 관현악곡이 초연으로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 관현악 음악의 활성화 및 연주회와 음반 등을 통해 대중에게 국내 창작음악 향유 기회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국내 창작 관현악곡의 발전과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